

2010 제 26 호

# 서구의회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



실과장 증인선서



# 서구의회보

2010년 통권 제26호

## CONTENTS



- 04 2010년 의장 신년사 |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 06 석남·가좌완충녹지 촉구 결의안
- 08 의원기고문  
자랑스러운 서구 어르신들 / 고월출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 구재용 의원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하화 변경 요구 / 송영우 의원
- 14 구정 질문 및 답변
- 20 제163회 서구의회(정례회), 제3차, 제4차 본회의 결과
- 22 구민 한마디
- 23 범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들
- 2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8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30 서구의회 의원 오피니언
- 32 제5대 제2기 의원현황
- 34 알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세테크
- 35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등

- 발행일 2010년 1월 19일 (제26호)
- 발행인 의장 강성구 ●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전화 032)560-4507~8, 팩스 032)561-4336
- 본지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구의회보는 인터넷(<http://assembly.seo.incheon.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의 장 신 년 사



## 존경하고 사랑하는 40여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어느덧 물러가고 경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10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다복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 서구의회에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한국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국민 특유의 저력과 자신감으로 최근에는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 강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 중요한 시점에서 서 있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입체적인 복합기능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 그리고 그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발전에는 도움을 줬지만 정작 살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여건을 만든 경인 고속도로의 직선화 도로 사업, 자연과 레저가 함께 하는 국제금융도시의 청라 경제자유구역, 또한 기존의 공장이나 혐오시설지역을 정비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13년 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낸 구민 여러분의 지혜와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의 주인은 우리 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구지역 발전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투철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으로 지방자치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 희망차고 밝은 우리 서구의 미래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여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정을 감시 견제 하며 공직자 여러분과는 협력자로서 서로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여러분께 우리 서구의회의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열린 의회,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물음에 답변하고, 구민의 생각으로 구상하며, 구민을 향해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구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린이에게겐 꿈을, 소외되고 어려운분들에게엔 희망을 주어 우리 구민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와 동반자로서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 본연의 임무로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반대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구민과 서구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와 협조하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우리 의원들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뒤쳐지지 않게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년 을 한해도 우리 의회가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주시길 바라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서구의회 의장 강 성 구

## 석남·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구 부담금 조속 반환 및 시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

석남·가좌완충녹지는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0여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 우리 구에서 각종 유해 산업 정비 및 인근 공단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녹지 심터 확보로 공장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석남완충녹지는 총사업비 883억원, 가좌완충녹지는 총사업비 540억원으로 구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으로 현재 2단계 조성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총 4단계로 되어 있는 조성일정 중 2004년 시작된 조성일정이 이제 겨우 2단계 공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2010년 완충녹지조성사업의 완료는 사실상 요원한 일이 되었다.

그 이유는 석남녹지의 경우 2006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시의 예산지원이 늦어지면서 2단계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883억원 가운데 구 자체 투자비는 2009년 기준 구 발행 지방채 244억원을 포함해 현재 398억원(45%)을 투자한 반면, 442억원을 투자키로 했던 시에서는 2004년, 2006년은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3년 10억원, 2005년 109억원, 2007년 52억원 등 총 284억원만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2007년 4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 부담금의 조속 지원을 위하여 △미 지원된 시 부담금의 조속한 반영 △미반영시 즉각적인 시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남완충녹지의 경우 구비대비 114억원의 시 부담금이 미 지급된 상태이며, 2010년 이후에도 근본적인 처방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신근린공원의 경우 866억여 원의 소요액 중 6:4의 비율로 오히려 구비의 비중이 높으며, 검암 근린공원의 경우 약 1,000억원의 예산액이 추정됨에도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서구의 재정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80억여 원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서 석남 및 가좌완충녹지의 총 711억원에 달하는 구비 부담액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년 구가 발행한 지방채로 인하여 10억여 원의 예산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부담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가용재원 중 상당부분을 시설녹지 사업에 투입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구는 인천의 자치단체 중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예산은 서구민의 삶의 질의 저하와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별표2의 제6호 바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명시된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규정된 시설로써,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좌·석남시설녹지사업, 원신, 검암근린공원 및 승학공원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제1항제2호 공간시설 중 공원, 녹지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광역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모두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구비의 부담은 타당치 않은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밀착행정에 힘써야 할 자치구의 입장에서 경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를 깊게 인식하고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SOC사업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서구에서 부담한 구비 전액에 대하여 조속히 재정보전을 실시하라.
2. 인천광역시는 원신 및 검암근린공원 소요 예산액 전액을 부담하라.

2009년 12월 0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고월출 의원

## 자랑스러운 서구 어르신들

내가 사는 가좌동에는 경로당이 곳곳에 있어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애뜻하게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가끔 들러 어르신들의 근황을 살피는 일은 큰 기쁨이며 그분들은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다. 혹시라도 식사 때 가면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시며 이것 먹어라 저것도 먹어봐라 권하시는 모습이 어릴 때 자란 시골 고향의 냄새가 그리고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코끝이 찡한 적이 많다. 그래서 난 혹시 속이 상한일이 있거나 우울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힘을 얻고 위로도 받아 심기일전하여 돌아온다.

우연히 어제 일요일에 경로당을 찾았다가 중학생 2명이 봉사활동을 나와 회장님께 '효'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어 나도 동참하고 들어 보았다. 강의의 요지는 너무 바쁜 요즘 학생들의 스케줄로 인해 일반적인 윤리와 효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도 집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 발전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하여 마련된 가좌4동 경로당 회장님의 아이디어였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김상갑 회장님은 '청소년 효친 문화학교'을 만들어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한 개인이 애태워서 될 일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 지금 청소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며 동분서주하고 계신다. 세련된 교재는 아니지만 김학렬 회장님이 직접 만드신 교재에 정성과 열정이 묻어 있으며 미래 나라의 발전은 정신의 기본이 서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엿보인다. 교재 내용 중 까마귀가 어릴 땐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잘게 씹어 먹이고 어미가 나이가 들면 새끼가 먹이를 잘게 씹어 봉양한다는 동물의 효행이 참 감동적이었다는 어느 학생의 독후감을 읽고 그 학생은 이제부터 뭔가 달라진 사고를 하지않을까?

나는 자랄 때 종가집의 대가족제도에서 성장했기에 자연스럽게 조부모님의 예절교육과 효에 대한 생각을 교육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성장일변도로 지향하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효'사상이 많이 도외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봉사활동을 온 학생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며 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케 하시는 것은 효뿐만 아니라 논술 준비에 그 보다 더한 방법은 없을 듯하다. 보통 봉사활동 나온 학생들의 일반적인 일이 청소·사무보조 등이 대부분인데



우리 경로당 회장님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서구에서는 어린이집과 노인들이 자매 결연을 맺고 어른들은 '경로효친' 사상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은 무료를 어른들께 재물을 부려 조손간의 사랑과 세대의 간격을 좁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실버환경지킴이도 있어 그냥 무료하고 무의미한 노년이 아닌 참여와 주인의식이 살아있다는 자부심과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일역을 담당하며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는 서구의 어르신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가좌4동 경로당 회장님처럼 직접 교재를 만드시고 학교 가정에서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효' 사상 고취에 정열을 쏟으시니 우리 서구의 장래가 사뭇 희망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인구가 7.4%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유익한 노후를 보낸다면 노령인구의 증가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오늘날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하는데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시어 이룬 경제 발전의 결과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아끼시는 게 몸에 배어 있어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전기로 걱정 때문에 사양하시고 추운겨울에도 기름값 아끼려 좀 추워도 그냥 난방시설을 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로당에 더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와 '효' 사상도 배우고 근검절약하는 어르신들의 철학도 배워가서 더 이상 어르신들께서 신세대가 버릇없다는 걱정이 사라졌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

깊게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마디가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니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구재용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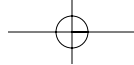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단지 년도 쓰는 칸에 2010년 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 외에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 별로 없다.

지난 12월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 개관식에 참석하였는데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니 적은 비용으로 심혈을 기울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최근에 개교한 학교와 비교를 하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신설한 학교로 전학 시키려고 주소 이전까지 감행하는 학부모가 있을까 싶다. 많은 분들이 최근의 우리 교육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직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 어느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는 학교의 여러 시설이 가정의 환경보다도 많이 뒤쳐져 있음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교육적 환경도 문제지만 구성원들의 교육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과 교사의 갈등,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학생들 사이의 왕따 문제 등 새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일들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 희망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적 장점을 따라 가려면 그에 걸 맞는 경제력도 있어야 하겠고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도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기 짝이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잘 나타나지 않기에 당장 가시적인 선전효과를 가져다주는 곳에 먼저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항상 교육재정은 공약과는 반대로 흘러간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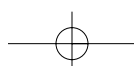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제대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사범대를 제대로 변화시켜 예비교사들을 교육시키면 오늘날 학교가 처한 문제점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을 축소시키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정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가는 모범적 행동을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도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언행의 불일치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정부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슬픈 일이며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안겨 줄까 걱정스럽다.

이런 와중에 최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낙후된 교육적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있어 주목된다.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고 하니 이런 후보가 인천의 지도자가 된다면 인천의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경인년 새해 아침에 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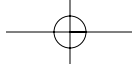
송영우 의원

##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하화 변경 요구

지난 18일 서구의회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 구간 지하화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과 맞물려 인천서구발전주민회 등 해당 주민들이 지하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 인천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시작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2007년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고가화 문제가 부각됐고, 지하화 변경을 위한 서구민 17만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1월 26일 국토해양부는 노선과, 사업기간, 정거장 및 차량기지 위치 변경 등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2호선은 오류동~왕길동 지하차도 앞 2.3km, 백석초교~공촌사거리 2.3km 구간은 기존 고가형태로 추진된다.

결과적으로 기본계획변경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담겨 있음에도 이 사업은 국비지원대상사업이라는 점, 사업의 재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총 사업비 증액이 20% 범위 이내라는 점,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즉, 비용편익분석(B/C)이 1이상 돼야 한다는 점, 여기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 개통이라는 중앙 투·융자 심사 조건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아무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2호선은 예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 전체 지하화 요구는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원의 신분이면서도 2007년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B/C값을 들어 어딘가는 고가화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지하화 문제는 일단 계획안이 확정 고시되고 난 이후에 거론해야 할 사업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야 말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고 난 뒤 계획변경을 통한 지하화 주장만이 해법이었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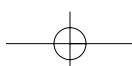
이를 되짚어보면, 지하화 주장의 시기가 지금도 가능하지만 어쩌면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구 주민들은 왜 하나같이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당시와 변화된 환경 감안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필요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특히, 타당성재조사와 관련된 평가기준은 경제성분석도 있겠지만, 재조



사의 쟁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책적 분석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하화를 해야 할 구체적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정리하자면, 검단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인천 서북부 거점도시로서 인천시에서 전략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장래 주요 개발지역일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부근은 향후 아라뱃길 등 도시계획시설이 상하로 중복 혼재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인접지역 개발을 중단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오류지구는 도시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남·북측이 저지대로 고가철도의 모습이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선이 형성될 것이며, 검암1·2,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택지개발 사업, 검단3·5구역 등 인천국제공항의 주거기능 배후도시로 활발한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 고가 철도는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비하는 주거지역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대인고등학교에서 검단사거리까지 4층 높이의 학교가 총 10여 개교가 위치해 있는 그 옆을 고가 철도가 오간다고 생각해보자. 아이들 학습권 및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 고가화 철거 및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포시 또한 도심위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4호선인 금정역에서 대야미역 7.5km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민투법인(SPC) 설립으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서초와 동탄 42km에 대한 광역 대심도 전철도 지하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전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고가화 철거에 나서고 있는 이때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서구지역 고가화 건설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 이런 점을 들어 타당성 재조사, 계획안 변경, 단계별 공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계획변경안은 개통 이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서,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된 지금 인천시가 지하화에 따른 예산을 추가 투입해 건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지역 쟁점사항을 고려해 전체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 » 구정질문 및 답변

### ◆ 구정질문 및 답변 (2009. 11. 26. 의회 본회의장)



홍순목 의원(검단1,2,3,4동)

#### 1.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업무 관리 전환과 관련한 재정 및 행정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대략 90%이상 진행되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환지처분 하여 축락등기를 한 후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현재 검단지역은 오류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역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로 환지 처분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6개 구역을 환지 처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 과도 면적보다 과소 면적이 53,000㎡ 정도가 더 많아 순수하게 약 680억 원의 청산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뿐 아니라 부족 면적에 대한 초기 청산을 고려하면 약 1,400여억 원의 자금이 즉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수 후 민원을 해결할 마무리 공사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에 대한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최소 5~6년 동안 토지 이용가치가 없어 매각되지 않았던 체비지 약 17만 7천㎡가 2,500억원의 가치가 있어 충분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하여도 시에서는 20여명이 진행 중인 업무를 현재 우리구의 인력만으로 충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검단지역 주민의 생활민원을 고려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 민원 해결을 그때그때 요구하는 한편 업무인수와 관련하여 시 본청과 시행기관인 중협건설본부와 합동으로 회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 2. 예산편성의 지역적 불균형 해결방안은?



매년 예산편성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최근년도까지 검단청소년문화의 집, 검단 능내공원 잔디구장 조성, 왕길동 204-13번지의 2개소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검단4동 복합청사 건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황화산 등산로 정비, 금곡저수지 정비사업 등 검단 신도시, 검단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예산을 반영, 타 지역에 못지않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검단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구정질문 및 답변



송영우 의원 (신현원창, 석남1,2,3동)

### 1. 환경문제 및 교통난 해결을 통한 친환경 북항 및 배후부지단지 조성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과 대책은?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하는 등 북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셨기에 지금의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하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우리 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을 위하여 녹지를 포함한 16만여㎡의 토지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비하여 추가 확보 요청안이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에 대하여 중봉로변 녹지를 50m로 확보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를 10,400㎡에서 30,000㎡으로 확대해야 하며 또한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비용부담 193억 외에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환경문제, 근린공원 위치 변경 등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본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북항 배후 개발계획 단계마다 또는 수시로 사업시행자와 인가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가능한 한 우리 구의 요구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 구청 내 사무실 점자 표지판 설치 및 의회 건물 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효성 재 검토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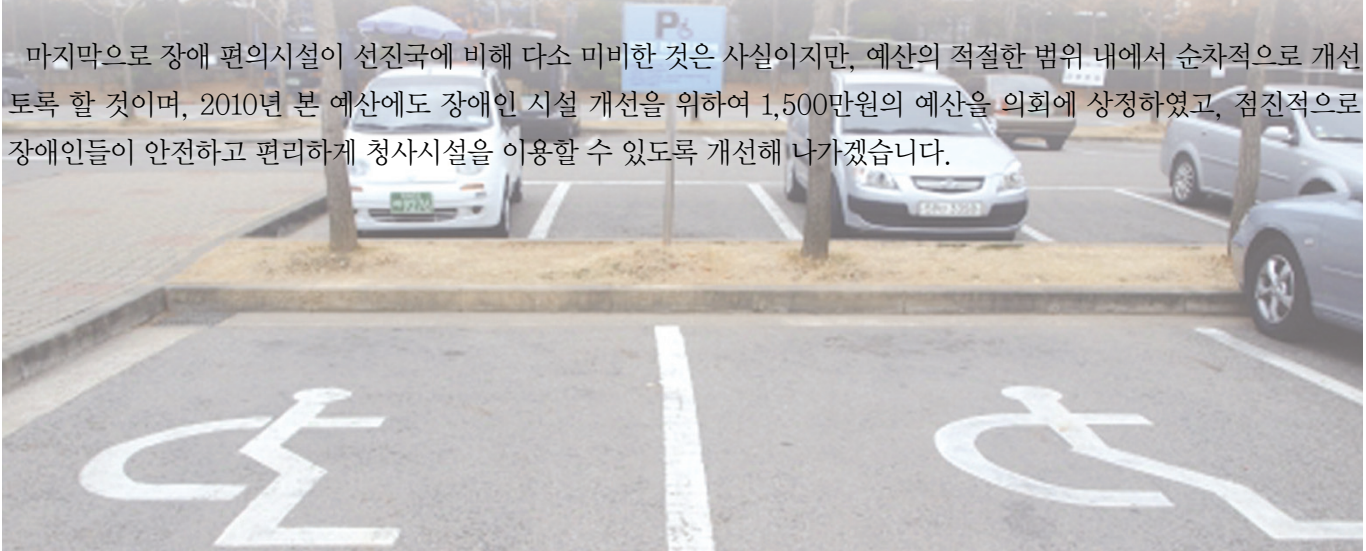
**+**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사는 1992년 6월 1일 준공 건립된 시설물로서, 당시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근래에 제정 및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된 장애인 점자판 및 촉지판 등의 편의시설을 일일이 설치하지 못하고 신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청사의 주출입구 동선을 대상으로 현관바닥의 점자판, 종합안내 촉지판, 민원실 육성안내기 및 호출기, 층별 촉지도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각 사무실별 점자 표지판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건물 앞 장애인 주차면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출입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민원실과 가까운 정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의회청사 및 별관 건물과 가까운 곳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의 출입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편의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이며, 2010년 본 예산에도 장애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구정질문 및 답변



김영옥 의원

### 1. 2009년 재원조정 미교부액 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 재원조정교부금이란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사항으로, 2009년도 우리구의 교부액은 당초 582억원에서 463억으로 변경되어 119억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금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감소되어 그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수·구청장 회의에서도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분을 최소화해줄 것과,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50%에서 55%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 미 교부액 119억원에 대한 재정대책으로는, 다행히 우리 구는 금년도 재산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103억원이 늘어나고 세출 집행 잔액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맞추었으나, 이에 따른 2010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의 전환과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예산을 조정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2,489,568	100.00%	249,255,518	100.00%	43,234,050	17.35%
일반회계	275,436,922	94.17%	240,000,113	96.29%	35,436,809	14.77%
특별회계	17,052,646	5.83%	9,255,405	3.71%	7,797,241	84.25%
기타특별회계	17,052,646	5.83%	9,255,405	3.71%	7,797,241	84.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71,800	3.58%	4,391,800	1.76%	6,080,000	138.44%
의료급여기금	434,319	0.15%	344,138	0.14%	90,181	26.20%
기반시설	568,230	0.19%	338,959	0.14%	229,271	67.64%
주차장	3,609,434	1.23%	3,125,801	1.25%	483,633	15.47%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59,585	0.05%	261,497	0.10%	△101,912	△38.97%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31,765	0.05%	629,897	0.25%	△498,132	△79.08%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677,513	0.57%	163,313	0.07%	1,514,200	927.18%



## 2.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인천 발전을 주도하는 첨단, 미래가 공존하는 도약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민이 열망해 왔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확정과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 아라뱃길 조성,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30여개의 대형 국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2025 인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서구의 발전 여건상 중요 계획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주민복지, 지식기반경제, 공원녹지, 미래환경, 전략 개발지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